

# [단독]'동방신기' 3명, 수입 내역 파악위한 '증거보전'도 신청

입력 2009. 8. 1. 13:51 · 수정 2009. 8. 1. 13:51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김대오 기자]



▲ 멤버 중 3명(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서까지 접수해 그룹 해체 위기에 몰린 국내 최고의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SM엔터테인먼트 제공/노컷뉴스)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가운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의 멤버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7월 31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을 낸 이후, 동방신기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도 함께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증거보전보전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은 전속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있어서 피고소인인 SM 측이 공정하지 못했거

나 성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에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서'에 밝힌 증거보전 대상은 '신청인의 연예활동에 관련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장부, 계약서, 영수증, 전표 등 문서 일체'로 기재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번 동방신기 멤버 일부의 소송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1일 오전 1시 쯤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세 멤버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31일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당사는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러우며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당사는 동방신기가 개인 혹은 일개 기업만이 아닌 국가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동방신기의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사는 화장품 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번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같은 SM 측의 입장에 대해 이번 소송에 동참한 멤버 3명은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를 통해 "심리적인 면에서 멤버들의 갈등을 심화시킨 하나의 요인이 될 지 몰라도 화장품 사업에 대한 이견 때문에 소송까지 온 건 아니다. 1일 SM의 공식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검토했는데 화장품 관련 얘기를 전면에서 부각시켰는데 이는 멤버들이 부가 사업 하나로 이렇게 법적인 소송까지 온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mrvertigo@cbs.co.kr ● SM "'동방신기' 활동은 지속돼야...화장품 사업은 조속히 대처" ● '동방신기' 소송... SM 긴급 임원 회의 ● '동방신기' 재중·유천·준수, SM에 '전속계약 풀어달라' 요청 (2보)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http://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